

대규모 미분양 제주 아파트 투자사기 의혹

해당 아파트 피해자 대책위 어제 도의회서 기자회견
투자자·하청업체 “40억대 피해… 구속·엄정 수사”
도에 대책마련 촉구 건의서… 시행사 대표 혐의 부인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겪으며 공매에 부쳐진 제주시 애월읍의 한 브랜드 아파트와 관련해 투자사기 의혹이 제기됐다. 투자자들과 중소 하청업체들은 “시행사로부터 40억 원대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로 구성된 해당 아파트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과 중소 하청업체들을 파멸로 몰고 간 거대한 사기극”이라며 제주 지방검찰청과 제주경찰청에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지난 2024년 완공된 이 아파트는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일대에 지하 2층·지상 8층 17개동 425세대 규모로 들어섰다. 그러나 이 가운데 1세대만 분양되고 나머지 424세대는 미분양이 이어지면서 결국 지난해 9월 공매에 부쳐졌다.

대책위에 따르면 아파트 사업 추진과정에서 시행사인 도내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A씨가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 20여 명으로부터 20억원 상당을 가로채고

유사수신한 혐의로 송치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또 2024년 분양 광고 용역업체로부터 9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시공사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행사와 대주단을 상대로 35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부당이익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들은 “시행사의 방만한 경영과 범죄 행각, 고분양가 책정으로 인해 ‘준공 후 99% 미분양’이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남기고 건물 전체가 공매로 넘어가는 파국을 맞이했다”며 “서민의 아파트 입주 꿈을 짓밟고 중소기업의 생존권을 빼앗은 행위에 대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수사기관은 1·

2차 사기와 유사수신, 대금 편취 혐의를 받는 시행사 대표를 즉각 구속 수사하고 철저한 보완수사와 추가 수사를 통해 범죄 수익을 추적하고 은닉 재산을 동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제주도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 대표 A씨는 해당 의혹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시 애월읍의 한 아파트와 관련해 투자자들이 사기 피해를 당했으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장대봉기자

제주시 원도심 유희 건물

청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탈바꿈

옛 신한은행 사옥에 청년 주거·지원시설 조성

제주시 원도심에 방치된 유희 건물이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탈바꿈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일도1동 일원의 비주택 매입임대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2026년 상반기 특화주택 공모사업’에서 ‘지역제한형 특화주택’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토교통부가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제주도는 도심 내 유희 자산을 매입한 후 리모델링해 청년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특화주택을 제안했다.

사업 대상지는 제주시 일도1동 1298-1번지 옛 신한은행 사옥으로

기존 지하 2층·지상 6층 규모의 업무시설을 증축해 지하 2층·지상 8층 규모의 청년 주거 공간 및 청년 지원시설로 재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기금 70억원, 지방비 74억원,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재원 78억원 등 총 222억원이 투입된다.

공급 규모는 청년형 매입임대주택 61호로 청년층의 지역 정착과 성장을 돕기 위해 주거 공간과 일자리·창업 지원시설을 갖춘 복합

용도로 설계됐다. 계획안에 따라 1~3층에는 청년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특화 공간 및 지원 시설이 들어서고, 4~8층에는 청년 주택이 배치된다.

향후 제주도와 제주도개발공사는 국토부 주택 매입승인, 건물 매입, 설계 및 인허가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2027년 매입 및 설계·인허가를 거쳐 2028년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층에게 주거와 취·창업 자립 기반을 제공하는 한편, 장기간 방치된 도심 유희 건물을 정비해 원도심 도시재생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폐현수막, 파라솔·에코백으로 재탄생

제품 제작에 사회적기업 참여

소각 처리되던 폐현수막들이 해수욕장 파라솔과 행사용 에코백·돛자리로 재탄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사와 선거, 홍보 등에 쓰인 뒤 버려지는 현수막을 수거해 친환경 제품으로 되살리는 재활용(업사이클링)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제주도는 그동안 폐현수막을 활용해 우산과 모래주머니, 쓰레기 마대 등으로 만들어 왔으며 올해는 행정 수요 중심이던 품목을 도민·관광객이 실생활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넓혔다.

해수욕장 개장 시기에 맞춰 파라솔을 만들어 도내 해수욕장 5곳에 보급했으며 에코백과 돛자리도 제작해 문화관광 행사에서 나눠주고 있다. 제주관광공사가 주최한 행사에는 에코백 400개와 돛자리 200개를 지원했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기업 소속 발



폐현수막을 활용해 제작한 해수욕장 파라솔.

달장애인인 제품 제작에 직접 참여해 환경 보호와 함께 취약계층의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보탬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현수막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 현수막 전용 게시대’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올해 2월부터 제주시 3기·서귀포시 1기가 운영되는 전용 게시대는 기존의 플라스틱 천과 고정용 끈 대신 생분해성 소재와 친환경 고정 방식을 적용해, 설치부터 폐기까지 환경 부담을 줄였다.

오소범기자

제주도교육청 18년 만에 ‘교육장’ 공모

지난 2008년 이후 처음
교육감 인사 기초 반영

제주도교육청이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18년 만에 공모로 선발한다. 고의숙 도교육감의 인사 기초가 반영된 첫 사례가 됐다.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공모 대상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이다. 임기는 2026년 9월 1일부터 1년이며, 1년 연장 가능하다. 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이면서 도내 국·공립 초등학교 교장 경력 1년 이상이거나 도교육청 소속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

도교육청이 교육장을 공모로 선발한 것은 2008년이 마지막이었다. 앞서 2004년과 2005년에도 공모를 통해 선발한 바 있지만, 이후에는 공모 없이 임명하는 방식이 이어졌다. 주로 학교장이 교육전문직으로 전직하거나 본청 과장급 직원이 승진하면서 발령받았다.

도교육청이 교육장을 공모로 선발한 것은 2008년이 마지막이었다. 앞서 2004년과 2005년에도 공모를 통해 선발한 바 있지만, 이후에는 공모 없이 임명하는 방식이 이어졌다. 주로 학교장이 교육전문직으로 전직하거나 본청 과장급 직원이 승진하면서 발령받았다.

교육장 공모제가 부활한 데는 고 교육감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교육청은 교육감의 ‘교육 자치 강화’와 ‘아이·현장 중심’의 철학을 반영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고 교육감은 도교육청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 자치 철학이 명확하고 소통형 지도력과 현장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공정한 선발을 위해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지원 서류부터 엄격하게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표절률과 인공지능(AI) 작성률이 각각 30% 이상이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심층면접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한다. 평가 외부위원으로는 교육전문가, 학부모, 지역위원 등을 위촉한다.

서류 접수 기간은 오는 13일 오전 11시까지이며, 이튿날인 14일 평가가 진행된다. 최종 임명자는 오는 9월 1일 교육장으로 취임해 임기를 시작한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제주의 맛, 그대로.
손끝의 정성, 그대로

제주의 바다와 들에서 얻은 재료,
그리고 제주웰링의 정성 어린 손맛.
몸이 편하고 마음이 쉬어가는 한 끼,
그게 바로 제주웰링입니다.



신한에코 | 제주시 죽성서길 7-10

064) 725-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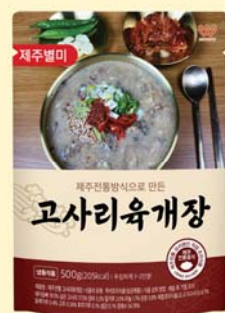
깊고 맑은 제주의 맛이 스며드는 한 끼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담았습니다.

신한에코 | 제주 전통방식으로 직접 조리한 식품

따뜻하게 데워 간편하게 집밥의 맛을 느껴보세요



제주묵국



고사리 육개장



고등어조림



갈치조림



성계전복미역국



제주갈치순살비빔장



전복순살비빔장



소라순살비빔장

이런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매장에 진열해서 판매하실 분,
기존 식당 메뉴에 추가를 원하시는 식당 사장님
행사, 도시락, 단체급식 등에 추천드립니다.